SLOW
슬로우성형외과의원
주소 : 제주시 노형8길3 우학빌딩 5~7층 문의 : 064-900-2600 심의필 : 제 180227-중-83863호

참간 30 since 1989 주년
한라일보

P 공항가는길 주차장 무료셔틀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세차무료(외부) 주차비저렴
Tel. 744-1199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

漢拏日報 제8918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8월 6일 화요일(음력 7월 6일)

4년째 뚝 끊긴 기업 유치… 돌파구 없나

2015년 '네오플' 이후로 제주 이전·투자 기업 '0곳'
땅값 상승·입지 부족 등 영향에 유인책도 효과 못내도, 관심기업 겨냥 유치전 집중… 내달 설명회 예정

"2015년 이후 제주도의 지원으로 기업을 이전한 곳은 네오플 외에는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등 도외기업을 대상으로 제주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4년째 '빈손'이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이전을 희망하는 도외 기업과 투자·이전을 약속하는 MOU(양해 각서)를 매년 체결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나 기업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의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지원 예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신청기업 2곳·예산지원 2곳(국비 17억5800원), 2014년 신청 1곳·지원 1곳(34억4700만원), 2015년 신청 1곳·지원 1곳(27억2700만원), 2017년 신청 1곳·지원 0원(0원) 등으로 집계됐다. 결국 2015년 제주로 이전한 '네오플' 이후 직접적으로 제주도의 지원을 통해 옮겨오거나 투자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기업의 제주 이전을 위해 부지비용 및 임대료 지원을 포함해 ▷건축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 등 지원 ▷직원의 교육훈련비 지원 ▷법인세·소득세 면제·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면제 ▷개발사업인·허가 편의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도 이전 실적이 없는 것은 국내 경기 침체는 물론 땅값 상승과 산업입지 포화에 따른 이전장소 부족 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단지는 더 이상의 수용능력이 안되는 형편이다. 제2첨단과기단지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부지 확보는 천정부지로 오른 땅값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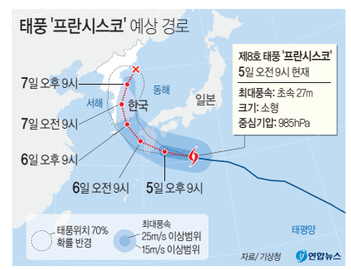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기업유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달 중하순쯤에는 IT와 BT업체 각 1개사와 이전·신설투자기업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행정은 유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기업은 투자계획 이행 및 도민 고용을 협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매년 전개하고 있는 기업유치설명회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오는 9월17일 서울에서 유치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주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소개를 비롯 벤처캐피탈 등 투자지원제도 소개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입지 소개 등과 더불어 1:1 기업상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제주도의 방침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잇단 태풍 소식에 제주 영향 관심

8호 '프란시스코' 오늘 근접
간접 영향에도 비피해 우려
'레끼마'도 中 향해 북상중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향하는 가운데 강도가 더 센 제9호 태풍 '레끼마'도 북상하면서 제주 영향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프란시스코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동쪽 약 39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4㎞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85hPa, 최대풍속 초속 27m, 강풍반경 230㎞로 강도 중의 소형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7일 오전 3시 통영 북서쪽 약 80㎞ 부근 육상에 상륙, 서울과 속초 등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6일 오후부터 영향권에 들겠지만, 태풍의 '위험 반원'에는 포함되지 않아 강풍보다는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란시스코보다 세력이 더 강한 제9호 태풍 '레끼마'도 북상하고 있다. 레끼마는 5일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85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의 속도로 남서진하고 있는데, 10일 오후 3시 중국 상하이 남쪽 약 490㎞까지 진출할 때는 중심기압 950hPa, 최대풍속 초속 43m, 강풍반경 420㎞의 강도 강의 중형급 태풍으로 세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9~10일에는 태풍의 위치가 유동적일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관광통역택시 예약, 언제 어디서든 쉽게"

도, 홈페이지 운영 시작
예약 확인 등 서비스도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통역택시' 홈페이지(www.jeju.go.kr/globaltaxi/)가 8월부터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예약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3개 국어를 지원하는 '관광통역택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으로 원하는 날짜에 택시를 예약할 수 있으며, 주사용자가 외국인인 점을 감안해 왓츠앱과 위챗, 라인, 카카오톡 등 다양한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예약 확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또 관광통역택시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관광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역별 주요 관광지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관광통역택시 홈페이지는 도 홈페이지(www.jeju.go.kr)의 관광정보-제주여행추천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여름, 숲 그늘 아래서 休~ 5일 제주 사려니숲길을 찾은 관광객들이 울창한 나무가 선사한 숲 그늘을 걸으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은 채 힐링하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관광통역택시는 현재 91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이용객 수는 118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조상윤기자

오늘의 기획 제주마을탐방 …7면 / 에코투어 … 9면

알 림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17탄
JDC 톡톡 튀는 교육특강

한라일보사는 도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내 청소년들의 인생 나침반이 될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열정을 갖고 미래를 준비함은 물론 학부모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각 분야의 멘토를 초청하여 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농민신문 기자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곳곳의 맛을 전하고 알쓸신잡, 수요미식회 등에 출연하신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초청하여 '음식은 어떻게 신화가 되는가?'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특강에 도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프로그램

주 제	강 사 명
음식은 어떻게 신화가 되는가?	황 교 익 (맛칼럼니스트)

▶ 일 시 : 2019년 8월 24일(토) 오후 2시
▶ 장 소 : 제주웰컴센터 웰컴홀
▶ 대 상 : 도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150명(선착순 모집)
▶ 신 청 : 홈페이지 접수(http://edu.ihalla.com)
▶ 수 강 료 : 무료
▶ 주 최 : 한라일보 / JDC
▶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문 의 : 한라일보 064)750-2523, 2540

한라일보 · JDC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